

도쿄 감동 잇는다...안산 이번엔 세계선수권 정조준

9월 20~27일 미국서 양궁선수권...지난 대회 저조 한국 명예회복 벌러 "좋은 성적 내 한국 위상 높이고 2025 세계선수권 광주 유치 힘 보낼 것"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스포츠 사상 첫 하계올림픽 3관왕에 오른 안산(20·광주여대)이 이번에는 세계선수권 대회를 정조준 한다.

안산은 다음달 20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치러지는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를 위해 19일 진천선수촌에 입촌, 훈련에 돌입한다.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열리며, 각국의 기량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무대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수확하며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한 태극궁사들의 도쿄올림픽 이후 첫 공식 훈련이다. 안산을 비롯해 김제덕 등 대표팀 멤버들이 훈련에 합류한다.

대표팀의 각오는 남다르다. 한국은 지난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5개 중 혼성전 1개 획득에 그치는 등 저조한 성적을 내 '한국 양궁 위기론'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대표팀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반드시 명예회복을 해내겠다는 각오로 나선다.

올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식으로 치르는 컴파운드 종목의 선수들도 원정길에 오른다. 최윤희(37), 김종호(27·이상 현대제철), 양재원(24·울산남구청·이상 남자부), 소채원(24), 김윤희(27), 송운수(26·이상 현대모비스·이상 여자부)가 출전한다.

안산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도쿄의 영광을 뒤로하고 선수 안산으로 돌아가 훈련에만 매진하겠다"며 "내 고향 광주가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준비하는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둬 한국 양궁의 위상도 높이고, 광주라는 이름도 각인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귀국 후 팬들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응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고의 경기력으로 도쿄의 감동을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선수단은 다음 달 중순 출국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6월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훈련하는 안산.



김영건의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아인 게임 경기 모습. /연합뉴스

다섯번째 패럴림픽 출전 광주시청 탁구 김영건 "신혼생활 뒤로한 채 막바지 훈련...2관왕 목표"

장애인 탁구 대표팀이 2020 도쿄패럴림픽에서 한국 탁구의 '자존심 지키기'에 나선다.

이달 24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는 도쿄패럴림픽에는 19명의 탁구 대표팀 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이번 대회 한국이 참가하는 14개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선수가 출전하는 탁구는 그간 패럴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이다.

2008 베이징 대회 때는 7개(금메달 1개·은메달 2개·동메달 4개), 2012 런던 대회(금 1·은 4·동 4)와 2016 리우 대회(금 1·은 3·동 5)에서는 9개씩의 메달이 이 종목에서 나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패럴림픽 탁구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로 두 자릿수 메달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총 목표 금메달 4개 중 절반이 탁구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20년간 대표팀에서 뛰어난 김영건(37·광주시청)은 "평생을 열어야 할 것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다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이던 1997년 척수염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영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탁구 선수의 길을 걸으며 장애인 탁구 대표팀의 '터줏대감'이 됐다.

처음 패럴림픽에 나선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탁구 개인 단식과 단체전 2관왕에 오른 그는 런던 대회에서 개인 단식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추가했고, 리우 대회에서도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어느새 자신의 다섯 번째 패럴림픽에 나서는 김영건은 "다른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와서 상위 8명 중 누가 금메달을 따도 이상하지는 않을 정도"라면서도 "하지만 컨디션이 좋다. 금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목표는 단체전까지 2관왕"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이달 8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는 한국 대표팀이 '노메달'에 그친 바 있다.

"올림픽 탁구에서 메달이 나오지 않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는 김영건은 "저희가 도쿄에서 애국가를 울려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영건은 올해 1월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신혼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패럴림픽을 위해 아내와 떨어져 합숙 훈련을 하고 있다.

"아내 얼굴을 못 본 지 두 달이 됐다"는 그는 "믿어준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어서 금메달을 따고 아내에게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학범슨' 후임은? ...축구협회 "늦어도 9월까지 선임"

새 올림픽 대표팀 감독 인선 착수 최용수·황선홍·최진철 등 물망

대한축구협회가 김학범(61) 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의 배턴을 이어받을 새 사령탑 선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빠르면 다음달 초까지 인선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김판곤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략강화위원장은 17일 "새로운 감독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단계"라며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선임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올림픽 대표팀 지휘봉은 김학범 전 감독이

2018년 2월부터 최근 막을 내린 2020 도쿄올림픽까지 맡아왔다. 김 감독은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고 도쿄올림픽 남자축구에서 8강 진출의 성적을 냈고, 7월 말로 계약이 끝났다.

축구협회는 당장 오는 10월로 다가온 2022 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비롯해 내년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새로운 올림픽(U-23) 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은 2022 AFC 챔피언십 예선에서 H조에 편성돼 싱가포르, 동티모르, 필리핀과 10월부터 싱가포르에서 경기를 치른다.

새로운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 후보군에는 최용수 전 FC서울 감독, 황선홍 전 대전하나시티즌 감독, 최진철 전 U-17 대표팀 감독, 정정용 서울 이랜드FC 감독 등 이미 다양한 이름들이 물망에 오른 상태다.

김판곤 위원장은 "현직 K리그 사령탑 가운데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축구협회 전임 지도자에게 임시로 맡기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외부에 있는 지도자가 확실히 좋다면 빨리 선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축구협회는 선임 감독이 내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려면 선수들을 발탁하고 전술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늦어도 내달 초까지 인선 작업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손흥민, EPL '이주의 팀' 최전방 공격수 선정

이적설 케인,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원정 25인 명단에 포함

맨체스터 시티(맨시티)를 상대로 결승골을 뽑아낸 손흥민(29·토트넘)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이주의 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17일 프리미어리그 사우디국인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2021-2022시즌 1라운드 '엘런 시어러의 이주의 팀'에서 4-3-3 포메이션의 최전방 공격수로 뽑혔다.

베스트 11을 선정하는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

시어러는 "손흥민은 속도와 기술로 맨시티에 문제를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맨시티와 2021-2022 EPL 1라운드에서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10분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왼발 슈트로 결승 골을 터트렸다. 그의 '개막 축포'에 힘입어 토트넘은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인 맨시티를 1-0으로 누르고 시즌 첫 승리를 따냈다.

손흥민과 함께 베스트11 공격직에는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히샤르리송(에버턴)이 선정됐

다. 미드필더로는 모하메드 사이드 벤라마(웨스트햄), 폴 포그바, 브루누 페르난데스(이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수비수로는 마르코스 알론소, 트레보 칼로바(이상 첼시), 이선 피닉(브렌트퍼드), 자렛 탕강가(토트넘)가 포함됐다.

골키퍼 자리는 알리송(리버풀)이 차지했다.

한편 이적설에 휩싸인 손흥민의 동료 해리 케인이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PO) 원정길에 동행한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17일 "파수드 페헤이라(포르투갈)와 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플레이오프에 나선 토트넘의 25인 명단에 케인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20일 오전 3시 30분 페헤이라와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다음달 예정 전남도체육대회 코로나로 취소

코로나 사태로 제60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취소됐다.

전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최근 이틀에 걸쳐 긴급 제35차 서면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영광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0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엔 제61회 대회가 순천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체육회는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비수 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이상으로 상황 조정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전남도, 전남도체육회, 영광군 관계자 등이 지난 7월에만 세 차례의 업무 협의 끝에 대회 취소로 가닥을 잡았다.

그동안 도체육회는 전남도와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전남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및 임원, 관계자 등에게 코로나19 백신 지자체 자율접종을

실시하는 등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제60회 전남도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그동안 인프라 개·보수, 손님맞이에 애쓰신 김준성 영광군수를 비롯한 영광군민 여러분들께 안타깝지만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사태가 더 심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와 돌파감염 등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렵게 결정한 만큼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함께 운동장에서 땀방울을 흘리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싱크홀
2관	인질
3관	싱크홀, 올드, 퍼피 구조대 더 무비
4관	싱크홀
5관	싱크홀
6관	인질
9관	모가디슈
7관	씨네커풀 올드, 프리 가이, 남색대문
8관	씨네커풀 모가디슈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박수를 보내다

독주회 시리즈 II
원재연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1. 08. 21.(토)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즐거움
문화산책